

주가	환율	금리
-9.43	-2.00	+0.01
1,321.67 (코스피지수)	956.60원 (원/달러)	4.78% (3년만기 국고채)
코스닥지수	550.87	(-1.04)
다우(18일)	11,381.47	(+46.51)
나스닥(18일)	2,163.95	(+6.34)
닛케이	15,969.04	(-136.94)
엔-달러 환율(도쿄 17:00기준)	115.65엔	(-0.15)
유로 달러 환율	1.2872달러	(+0.0036)
3년만기 회사채	5.10%	(+0.01)
클레리	4.48%	(보합)

TV 더 크게 더 얇게

삼성전자, 70인치 초고화질 LCD 개발

삼성전자는 70인치 '초고화질(풀HD급)' LCD 패널을 개발, 내년 상반기 TV 제품으로 상용화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제품은 120Hz(Hz는 1초당 표현하는 화면 수)로 영상을 재현하기 때문에 스포츠 경기처럼 빠른 영상을 구현하더라도 '블립' 현상 없이 선명한 화질을 즐길 수 있다고 삼성전자는 설명했다. 기존 초고화질 해상도 LCD TV의 주파수는 통상 60Hz였다.

삼성전자는 70인치 초고화질 LCD 패널 개발에 따라 향후 초대형 TV 시장에서 LCD의 입지를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LCD TV 대형화에 대한 논란도 종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LG전자, 세계 최소두께 브라운관 TV 출시

LG전자는 세계에서 가장 얇은 두께의 평면 브라운관 TV인 21인치 울트라 슬림 평면TV(모델명 21FS6R)를 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21인치 울트라 슬림 평면TV는 모듈(CPT)과 TV 세트의 두께가 각각 296mm와 330mm로, 기존 슈퍼슬림 평면TV의 353mm와 396mm에 비해 16%와 17% 각각 줄어든 것이다. 비슷한 사이즈의 LCD TV 두께는 반점대를 포함해 200mm 내외다.

LG전자는 지난해 2월 1일 세계 최초로 32인치 슬림 TV를 출시한 바 있다. 또 울트라 슬림 TV의 편향각은 120도로, 일반평면TV의 90도보다 확대됐다. 편향각은 전자총에서 방사된 빔(광선)이 TV의 좌우와 상하단에 이르는 각도를 뜻하며, 편향각이 커질수록 TV 두께는 얇아진다고 LG전자는 설명했다. /연합뉴스

빅마트 17호매장 영암 삼호점 오픈

향토 유통업체인 빅마트가 창사 11주년을 맞아 영암 삼호점을 개점한다.

빅마트는 오는 24일 영암군 삼호면 현대삼호중공업 한마을 회관 1층에서 17호 매장의 삼호점(매장면적 700여평) 오픈식을 갖고 본격 영업에 들어간다.

삼호점은 지난해 개점한 목포 연산·하당점에 이은 전남지역 3번째 매장으로 빅마트의 전남 시·군단위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할 전망이다.

삼호점은 현대삼호중공업 인근 3천여세대의 아파트단지를 끼고 있으며, 영암과 목포, 해남, 진도, 완도 등에서의 접근이 용이하다. 또 삼호점이 입점한 한마을회관에는 수영장도 비롯한 스포츠 센터, 금융시설 등 각종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韓銀 광주·전남본부장에 남세기씨

한국은행은 최근 신임 광주전남본부장에 남세기(54·사진) 강원본부장을 발령하는 등 25일자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남 본부장은 경기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지난 1974년 한국은행에 입행, ▲파리사무소 과장 ▲국제부 과장 ▲인사부 부부장 ▲금융시장과 시장조사실장 ▲부산본부 부본부장 등을 거쳤다.

남 본부장은 "지자체 및 지역발전연구원 등과 함께 지역내 '싱크탱크'(Think Tank)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성철 광주전남본부장은 경기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또 목포본부 정형운 과장(4급)을 비롯 김영관·박지원·이정국 조사역(이상 5급) 등은 광주전남본부로 이동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M&A 시장나온 '동아건설' 새주인 누가 될까

이달 28일 입찰

대주·포스코건설 등 14개 업체 인수 경쟁

매각대금 놓고 채권단-인수희망업체 막판 신경전

동아건설의 본 입찰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인수를 희망하는 국내 건설업체들의 경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특히 동아건설 인수전에는 수산중공업건설(수산중공업·한국전력기술·포스코건설)을 비롯 광주지역 중견 업체인 대주건설, 보성건설 등 총 14개 업체가 뛰어드는 등 치열한 인수전을 예고하고 있다.

21일 자산관리공사(캠코)에 따르면 최근 인수·합병(M&A)시장에서의 관심 매물로 떠오른 동아건설에 대해 오는 28일 본입찰을 실시한 뒤 9월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본격적인 매각절차가 들어갔다.

◇14개 업체 인수전 치열=현재 동아건설 인수에는 수산중공업건설(수산중공업·한국전력기술·포스코건설), 경남기업, 삼한기업 등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역 업체인 대주건설과 보성건설도 막바지 인수작업에 돌입했다.

특히 대주건설의 경우 토목시장 진출과 원전 건설시장 참여 등을 통한 사업다각화를 모색하기 위해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다. 광주지역을 기반으로 한 대주건설은 대한조선, 대한화재 등 20개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으며, 대주건설 인수전에 참여하기도 했다. 보성건설은 2004년 2월 한 때 도급

순위 10위권에 올랐던 한양건설을 인수한 여세를 몰아 동아건설 인수전에 참여했다. 경남기업과 코오롱건설은 각각 해외사업 부문과 원자력 등 플랜트 부문 강화를 위해 인수를 위한 재무적 투자자 구성 등 막바지 인수 작업을 벌이고 있다.

◇업체들 "5천억 이상은 곤란"=자산관리공사가 14개 인수 후보업체에 보낸 '본입찰 안내서'에는 유상증자 비율이 최소 50%를 넘어야 한다고 못박았다. 가령 매각 가격이 5천억원일 경우 감사 이후 인수자가 회사 정상화를 위해 주식에 투자하는 금액이 2천500억

원 이상은 돼야 한다는 것이다. 동아건설의 청산가치는 2천700억원이지만 담보채권 등을 감안할 경우 4천억원대로 높아진다. 여기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감안하면 최소 5천억원은 넘어야 명함을 내밀 수 있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일부 업체들은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자산공사 등 채권단이 입찰안내서에 유상증자 비율을 못박은 것은 그만큼 가격을 부풀리기 위한 수단이란 지적이다.

일부 인수참여 업체 관계자들이 "5천억원 이상이 될 경우 인수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한편 동아건설은 1970년대 중동건설 붐을 주도하며 한 때 국내 도급순위 2위에 올랐지만 1998년 9월 '위크아웃'에 들어간 이후 분식회계를 통한 불법 사기대출 사실까지 밝혀지면서 2001년 5월 법원의 파산선고를 받았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뉴오피러스 테니스연맹 서울총회 의전차량에 기아차(주)는 23~25일 신라호텔에서 열리는 '2006 국제테니스연맹 서울총회'에 뉴오피러스와 그랜드타 니발 등 총 12대를 의전차량으로 제공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기아차 제공)

유가 상승에 창업 위축

광주·전남 2분기 신설법인 553개-전년동기비 189개 줄어

2분기 광주·전남지역 신설법인 수가 크게 감소하는 등 유가 상승, 환율 하락 등으로 창업 심리가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2분기 신설법인 수는 553개로 전분기 대비 167개, 23.2% 전년동기 대비 189개, 25.5% 감소했다.

산업별로는 서비스업이 352개에서 293개로 16.8% 감소한 것을 비롯 건설업 181개에서 127개로, 제조업 167개에서 116개로 줄어 들었다.

지역별로는 광주지역이 308개로 전분기 대비 81개, 20.8%, 전남지역이 245개

로 전분기 대비 86개, 26% 감소했다. 자본금 규모별로는 2억5천만원 미만 소규모 창업이 466개로 전체 신설 법인의 84.3%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이 지역 창업이 급감한 것은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 상승, 환율 하락 등으로 채산성이 악화된 데다 소비심리 회복 지연에 따른 내수부진 등 영향으로 창업 심리가 악화되면서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지난달 전국의 신설법인 수는 3천824개로 지난해 2월의 3천690개 이후 1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수출株 ☺ 내수株 ☹

증권사들 하반기 실적 전망
자동차·조선 등 실적개선 주도
은행업종 매출·영업이익 줄 듯

증권사들은 환율하락과 주력 수출산업인 정보기술(IT)의 경기회복 등에 힘입어 올 하반기 수출기업들이 큰 폭의 이익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내수경기 하강 영향으로 내수기업들의 이익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상장사, 하반기 영업이익 전기대비 20.8% 상승 전망 = 21일 금융정보 제공업체인 와이즈에프엔에 따르면 국내 증권사가 분기별 이익 추경치를 내놓은 12월 결산 유가증권시장 상장 204개사의 올해 하반기 전체 매출액과 영업이익, 순이익이 각각 324조240억원, 31조2천289억원, 26조6천411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들 기업의 전체 상반기 실적과 비교하면 매출액이 12.6%, 영업이익은 20.8%, 순이익은 8.3% 늘어나는 수치다. 대표적인 수출업종인 전기전자는 하반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하반기 대비 각각 10.9%, 46.6%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전기전자·자동차·조선 실적개선 주도 = 자동차와 조선업체가 포함된 운수장비도 하반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6.0%, 48.4%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현대차는 하반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14조7천913억원과 8천495억원으로 상반기 대비 각각 6.7%, 14.1% 증가하고, 기아차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8조9천955억원, 1천302억원으로 각각 1.7%, 661.8%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조선주도 뚜렷한 실적개선 추세를 보여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의 하반기 영업이익이 각각 3천623억원과 1천626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기계업종도 해외플랜트 수주 증가에 따른 영향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15.1%, 38.3%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고유가 등 원자재값의 고공행진으로 상반기에 직격탄을 맞은 소재업종도 하반기에는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내수주, 하반기 실적악화 예상 = 반면 내수업종은 내수경기 하강에 따른 영향으로 대체로 하반기 실적이 상반기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증권사들은 상반기에 이익잔치를 벌인 은행업종의 하반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14%, 13.4% 줄어 들 것으로 추정했다.

통신업종도 매출액은 1.8% 늘어나지만 영업이익은 17.1% 줄어 들 것으로 예상됐다. SK텔레콤은 영업이익 3.7% 늘어나는 반면 KT는 52% 급감할 것으로 전망됐다. /연합뉴스

제조업체들 투자않고 돈 쌓아 둔다

10대그룹 유보율 700% 넘어

기업들이 벌어들인 돈을 쌓아놓기만 하면 유보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특히 10대 그룹의 경우 유보율이 70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 재무 안정성이 지난해 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나오는 실정이다.

21일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12월 결산 제조업체 중 관리종목이나 전년도 실적비교가 불가능한 곳을 제외한 539개사의 올 6월말 현재 유보율은 평균 597.6%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12월말의 574.4%보다 6개월 사이에 23.3%포인트나 높

아진 것이다. 잉여금을 자본금으로 나눈 비율인 유보율은 영업활동을 하거나 자본거래를 통해 벌어들인 자금 가운데 얼마만큼을 사내에 쌓아두고 있는지 나타내는 지표다. 이 비율이 높으면 통상 재무구조가 탄탄하고 무상증자, 자사주 매입, 배당 등을 위한 자금 여력이 크다는 의미를 갖지만 투자 등 생산적 부문으로 돌리지 않고 고여 있다는 부정적 측면도 지닌다.

10대 그룹은 144조9천651억원의 잉여금과 20조5천276억원의 자본금을 기록하면서 유보율이 작년 12월말 665.4%에서 올 6월말 706.2%로 40.8%포인트나 높아졌다. /연합뉴스

기업 66% "한-미 FTA 찬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타결만 국내경기 호전

한국-미국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반대하는 일부 여론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한·미 FTA가 성공적으로 타결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서울·수도권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한·미 FTA 관련 기업 의견 조사'를 통해 얻은 620개사의 의견에 따르면, 65.8%가 '한·미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응답은 23.7%에 불과했다.

특히, 도소매업종은 응답기업의 72.5%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

다'고 응답해 다른 업종(제조 63.9%, 건설 57.7%)에 비해 한·미 FTA를 찬성하는 비율이 높았다.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대기업(67.2%)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65.2%)도 한·미 FTA를 찬성하는 비율이 반대하는 비율보다 높았다.

한·미 FTA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는 반대여론에 대해서는 '타당한 주장이다'(23.9%)는 응답보다 '일부 편향된 주장이다'(70.8%)는 응답이 많았다.

한·미 FTA가 성공적으로 타결된 후 국내경제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호전될 것'(74.5%)이라는 응답이 '오히려 더 나빠질 것'(25.5%)이라는 응답의 3배에 달해 기업들은 한·미 FTA의 성공적인 타결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함께 일합시다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및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①빅마트	매장관리/전산/일반사무직 사원채용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8/23	062-650-2205
②한국알프스(주)	신입 및 경력사원 모집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8/23	062-950-2113
③화인코리아	공무/환경/영입 정규직 사원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8/24	061-330-4520
④컴팩아시아	2006년 하반기 정규직 사원모집(전기,생산)	초대졸/경력2년	회사내규	08/25	070-7018-0077
⑤신성하이텍(주)	신성하이텍 정규직 경력사원 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8/25	062-952-1441
⑥경진산업	자동차부품 생산직 직원	고졸/경력무관	1600~1800	08/25	062-511-3078
⑦기아자동차광주제일대리점(주)	신입, 경력사원 및 주부사원 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8/26	062-574-8011
⑧기영미디스	분야별 정규직 사원(영입/대리점/텔레마케터/생산직)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8/26	062-952-9442
⑨오리온	영업사원 (광주광역시)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8/26	062-373-2391
⑩미스터관광호텔	프론트, 식음료 사원 모집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8/26	010-9810-7449
현대에프에스	경리 및 발주업무 담당 사원모집	고졸/경력무관	1000~1200	08/27	062-959-5114
⑪남전기(주)	생산관리, 품질관리, 연구개발, 생산직 사원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8/27	062-954-0182
⑫지이오하우스	폭스바겐 광주전시장 A/S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8/28	062-351-9500
⑬하나방송	케이블TV A/S직원	고졸/경력무관	1600~1800	08/28	011-605-8660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